

북한에서의 국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成 賢 慶

- I. 서론
- II. 창작과 현실
- III. 비평 및 문학 일반론과 현실
- IV. 국문학 연구와 현실
- V. 결론

I. 서론

사회주의식의 문학에 대한 리얼리즘적인 견해는 문학이 '실재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생활 자체의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현실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¹⁾는 단순하고도 교조적인 반영론에 귀착될 우려도 있다. 특히 관제언론과 어용학문이 사회문화를 주도하던 시대나 체제하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반

* 이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 완성되었음.

1) 윤종성 외, 『문예상식』, 평양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94, p.687. '사실주의'조 참조.

영론이 작가나 연구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학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이런 견해는 가혹한 원칙으로 고착되어 버리기도 했는데, 이 소박한 반영론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교조적인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반영론이 교조적인 비평 원칙으로 고착된 사회에서는 문학연구가 경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당연한 수순으로 창작활동의 자유마저 제한하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고도의 지적·정신적 활동인 문예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에는 문화마저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모든 문학작품들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져 창작, 윤색, 변형, 해석, 평가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문학작품 내지 문학의 지위는 자연히 가변적인 것으로 격하되게 된다. 실제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는 문학의 지위가 공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실추된 바 있는데, 특히 북한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문학이 대체로 당의 노선을 선전 선동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특히 경색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문학이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 일가의 날조된 업적을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된 '반영론'은 김일성의 독재체제 구축에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문학의 창작과 연구에 절대적인 방향타 구실을 한 바 있다. 반영론의 극단인 역사적 합법칙성은 문학연구의 결과로 추상된 입론이 아니라 작품을 그 원칙에 맞추어 창작하도록 강제하는 연역적인 전제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북한의 문학은 그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국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고찰하려는 본고는 그 목적상, 실재는 교조적 반영론에 불과한 사실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문학의 창작과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이용되었는지 그 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의 문학의 창작과 비평과 연구는 순환 반복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창작과 비평과 연구를 모두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적—사회정치적—변모 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정치사는 곧 김일성의 1인독재를 구축해 가는 과정 그 자체였음이 분명한 이상, 국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사회정치적인 변모 과정과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당의 일당독재와 김일성 부자의 세습적인 권력강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사를 대략 4기로 나눌 수 있다. 다수에 의한 권력 분점기인 해방에서 50년대까지, 김일성의 권력 강화기인 60년대, 1인독재체제의 완성기인 70년대, 세습체제의 안정적인 확립기인 80년대 이후가 그것이다. 이런 정치사적인 변화에 따라 문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문인들에 대한 요구와 가치평가는 물론 문인들의 지위도 변모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시류에 발빠르게 대응한 창작과 현실과의 관계 역시 정치사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대략 네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하지만 비평과 문학연구는 창작과 달리 정치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므로 정치적인 변모과정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평과 국문학 연구에 관해서는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II. 창작과 현실

2.1. 해방~50년대의 창작풍토

해방 당시 활동중이던 문인들은 대부분 서울에 상주했기 때문에 평양 문단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평양 문단도 자유주의자 중심의 평양예술문화협회와 공산주의자 중심의 평남지구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으로 분열하게 되면서 사상투쟁과 이념대립을 펼치게 된다. 그 가운데 소련의 지원을 받은 후자는 지역별 조직을 강화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간 반면, 전자는 평남지구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강압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의 약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게다가 서울에서 세력 다툼에 패한 문인들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작가들이 월북하여 합세한 뒤 조직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문예총)이 문학예술운동의 노선을 공산당의 정치노선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북한에서 자유로운 문예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문예총 조직을 통한 활동이 공산당의 문예정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통제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2월부터 실시된 이른바 건국사상동원운동부터였다. 이 운동으로 문학활동에 대한 사상 검열이 시작되어 공산당에 불온한 태도를 보인 문인들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문학동맹 원산지부에서 발간한 시집 『凝香』에 대한 검열이었다. 문예총은 상임위원회 명의로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여기에 가담했던 문인들을 심문하면서, 당시 이북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문예운동에 대하여 총체적인 검열을 하게 되었다. 이 시집에서 특히 具常의 시들은 작가동맹의 시 및 평론전문분과위원회의 멤버였던 白仁俊에 의해 극악한 반동시로 규정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결국 시집 『응향』은 판금되고, 이에 가담한 시인들은 혹독한 자아비판을 강요당하였으며, 집중적인 비판을 당한 구상은 사선을 넘어 월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²⁾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에 바탕을 두는 문학이 위축되고, 대중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교양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문학이 강조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말하자면, 뒷날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2) 이상의 논의는 權寧珉, 『解放直後の 民族文學運動研究』, 서울대출판부, '86. pp.32-34 및 李基奉, 『北의 文學과 藝術人』, 社思研, '86. pp.186-198을 참조함.

내용을 담는다”는 북한문학의 기본적 슬로건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벌써 이 당시부터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1948년 김일성정권 수립 후 6·25 남침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즉 본격적인 ‘민주지치 건설기간’의 북한의 문학예술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교양(노동의 미화, 생산촉진), 8·15 후 북한에서 이룩된 제반 사회개혁(토지개혁, 적산기업의 국유화, 친일파 처단, 남녀평등 등)의 찬양 선전, 미국과 남한 민족진영(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방 중상과 인민의 적개심 고취, 남한 좌익세력의 인민항쟁 및 고무 선동, 그리고 김일성의 영웅화, 당이 창건한 그들의 군사무력(인민군 및 경비대)에 대한 주민의 신뢰 강조 등 당의 정책 관철에 총동원되었다.³⁾

해방 후의 이런 맥락과 직접 연결되는 6·25 당시의 문학활동은 당연히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성과작이라는 것도 전선의 군인들에게 전투의식을 고취시키고 후방의 인민들을 고무하기 위한 구호와 선전의 나열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작가들도 종군작가의 신분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창작한 작품들도 선동물에 불과했다. 공산당은 서울 점령 이후 남로당 계열의 작가와 미처 피난하지 못한 민족진영의 작가들을 남북시키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북한의 문단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문인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김일성 일파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남로당계 인사들을 제거하면서, 많은 문인들도 함께 숙청하거나 그들에게 자아비판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문단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이후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대부분의 문인들은 주류에서 소외되고, 김일성 일파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소수의 인사들이 문단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의 지휘를 받은 전후의 문학은 복구 건설을 고무하고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펼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정강이나 정책이 확립되지 못한 50년대 중반

3) 李基奉, 전거서, P.250.

이후의 문학은 구호만이 요란했을 뿐 별다른 성과작을 내놓지 못하여,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으로 대표되는 전쟁 이전의 수준만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2. 60년대의 창작풍토

북한에서는 50년대말에 이르러 전후의 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종결되자, 문예 방면에서도 ‘혁명적 문학예술’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문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힘있게 확인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혁명사상을 키우며 공산주의적 풍모를 확립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⁴⁾을 창조해야 한다는 당면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 시대의 문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천리마의 기세로 들끓는 현실과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할 시대적 요구를 옹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맞는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⁵⁾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문학의 역사적 합법칙성을 강조하는 그들의 처지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고 특정한 상황이 형성되면, 이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요구하게 되는 법이다. 사회주의 건설기라는 60년대

4)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II』, 인동, '88, pp.228-9.

5) 박종원·류만, 전게서, p.231.

북한문학에서 그려진 전형은 바로 기적적인 이야기들과 천리마기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 항일무장투쟁 현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 이른바 조국해방전쟁과 인민군대의 영웅투쟁,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 자신을 혁명화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즐기게 별이는 남조선 인텔리의 형상 등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고평되는 이 당시의 단편소설 『길동무들』과 『백일홍』, 중편소설 『회답』과 『청춘의 고향』, 그리고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와 『시대의 탄생』 등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런 전형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에서 볼 때 남한출신 작가의 이용가치는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50년대까지는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체제적인 문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출신의 문인들을 서로 대립·이간질시키면서 숙청하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출생하고 교육받은 작가들을 양성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60년대 초에 이르러 북한출신의 문인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자, 노동당은 63년 이용가치가 떨어진 문예총 중앙위원장 韓雪野에게 종파주의자, 북고주의자, 일제시대 군수의 아들, 부화방탕 등의 죄목을 씌워 숙청을 하였다. 이로써 남한출신의 작가들은 거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김일성 일파는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남한출신의 소수 문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출신의 작가들을 전면에 세워 작가동맹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였다.

이후에는 문예창작도 수공업적인 형태에서 공업화로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대작창작그루뵙>라는 것을 만들어 집체창작을 지도하였다. 이 단체는 1964년 7월, '혁명적 대작'을 창작해 내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북한 노동당 문학예술부의 인선으로 조직된 것인데, 결국 창작력이 있다는 장편소설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북한 노동당이 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지도, 통제, 감독하기 위한 당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였다. 북한에서의 문예창작이 집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작가들이 창작 스타일과 개성을 무참하게 유린당한 채 구상, 구성, 초고 집필, 수정, 완성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로부터였다.⁶⁾ 말하자면, 북한의 현대문학사에서 1964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였던 셈인데, 사실상 이로부터 자유로운 문학활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 70년대~80년대 중반의 창작풍토

70년대는 북한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기로 기록될 만하다. 정치적으로는 60년대말 연안파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완결되어 김일성에 의한 독재체제가 완성되었고, 철학적으로는 그들이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이 이전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문학적으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견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창작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종자론’이 구체화되고 동시에 주체적 문예이론의 완전한 구현이라는 집체작 《불멸의 역사》 총서가 창작되기 시작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70년대이다.

창작 방법에서는 북한이 주체적 문예이론의 구현이라고 자랑하는 총서 《불멸의 역사》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 있다. 이 총서는 1968년에 만들어진 <4·15 창작단>이 창작한 집체작으로, 천재봉의 『혁명의 려명』(1976)으로부터 진재환의 『잊지 못할 겨울』(1984)에 이르기까지 나온 장편소설 모음집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것들은 “주체의 기치 밑에 우리 혁명의 새 시원이 열리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준엄하고 간고한 시련을 헤치고 조국광복의 위업이 성취되던 항일혁명투쟁의 뜻깊은 년대들을 력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⁷⁾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

6) 社團法人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1993)』, '94, pp.655-6 참조.

시고 그를 항일혁명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내세우고 훌륭히 해결한 대작으로,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집대성하고 새로운 비약의 계기를 열어놓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빛나는 정화”⁸⁾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총서는 김일성을 절대적이고 영웅적인 존재로 우상화하려는 목적의식을 너무나 깊이 깔고 있는 저급한 선동물에 불과하다. 총서에 들어 있는 모든 소설이 오로지 김일성과 그 일가의 날조된 업적과 영웅적인 행적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 총서는 치졸한 영웅주의와 관변 작가들의 아부성 행태가 합작된 관제문학의 대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역사소설이란 치밀하게 수집된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특한 역사 해석이 덧붙여져서 빛어진 고도의 정신적 작업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멸의 역사》는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특정인을 우상화하는 과장된 선전물일 뿐이다. 이 총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빛나는 정화’가 아니라 70년대에 들어 북한문학이 김일성과 그의 일가를 우상화하려는 선전과 선동의 도구라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70년대 문학의 창작풍토는 암흑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시문학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시문학의 경우, 북한에서 70년대에 씌어진 시들 가운데 가장 칭송을 받는 것의 하나로 김일성이 지은 「묘향산 가을날에」를 들 수 있는데, 이 시는 김일성이 1979년 10월에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7) 박종원·류만, 전게서, p.285.

8) 박종원·류만, 전게서, p.288.

을 찾았다가 묘향산의 가을 경치를 보고 감흥과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는 4행 3연의 4음보 가사로, 시적 형상화가 전혀 안된 문학청년의 습작기 소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김일성이 직접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불후의 고전 명작이라고 칭송되고 있다. 이 시 말고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었다는 작품은 어느 것이나 불후의 고전적인 명작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문학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문학의 현주소이다.

북한문학에서 70년대의 창작풍토를 검토할 때 눈에 띄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을 바로 김정일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71년에 「대를 이어 충성을 다 하렵니다」라는 시가 집체작의 형태로 창작된 것을 필두로 하여 김정일을 칭송한 시집이나 서사시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김정일이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문인들은 김정일을 창작의 소재로 삼아온 것이다. 이것으로 북한의 문인들이 얼마나 시류와 권력에 영합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문학이 오로지 김일성과 그의 일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저들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문인의 양심과 서정 그리고 치열한 작가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인의 미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해서 인민들을 세뇌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 바로 70년대인 것이다.

2.4. 80년대 중반 이후의 창작풍토

북한의 현대사에서 80년대는 체제의 안정기에 해당한다. 김일성의 권위는 신격화되어 더 이상의 저항 운동이나 격화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김정일도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거의 완벽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체제상의 안정기에 접어들자 문학에서도 이제는 지나친 도식주의를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지나친 사상

성의 노출과 내용 위주의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 사상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80년대에 들어서 처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이 문예 방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70년대 초반에도 이런 움직임은 있었다. 예컨대 김정일의 70년대 저작인 『영화 예술론』에는 그러한 언급이 보인다. 아직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기상조였지만, 다음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작가들이 문학의 예술성을 고려하게 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푸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 작품에서 주제의 정치적 의의를 강조한다고 하여 정치성 일면에만 치우쳐서 예술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작품에서 정치적인 것, 사상적인 것은 예술적인 것, 정서적인 것과 결합되어야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동을 줄 수 있다.⁹⁾

80년대 들어서 북한이 완전하게 세습체제를 갖춘 다음부터는 이런 경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1988년에 간행된 시인 김상오의 시집 『나의 조국』은 “북한 시단에서 최고의 체제 찬양물로 꼽힌다”¹⁰⁾지만, 그리고 비록 시집에 실린 대부분의 시에서 강산의 아름다움이나 인민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찬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대부분 개인의 정서를 투영하여 서정성의 구현에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시들은 불과 10여년 전에만 나왔더라도 시적 자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격정적으로 드러났을 만한 것들인데, 체제 안정기인 80년대 중반에 나온 때문인지 시적 자아가 비교적 담담하고 절제된 정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예술적인 형

9) 김정일, 『영화예술론』, 평양 : N.P., '73, pp.30-35.

10) 이재인·이경교, 『북한문학 강의』, 인천 : 효진출판사, '96, p.127, 각주 22)번.

식과 문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과 의식이 김상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8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다른 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문단에서 80년대 중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의 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재인·이경교 공저의 『북한문학 강의』에 실린 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나온 중단편소설 6편은 “이념과 예술 사이의 의미 있는 방황”¹¹⁾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들이 나름대로 예술성을 구현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술성이 ‘주체적 사실주의’나 ‘종자론’에서 요구하는 사상성이나 혁명성을 도외시킨 채 추구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결과만으로도 북한 작가들이 80년대 중반에 들어 어느 정도 김정일이 요구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체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일은 1992년에 자신이 쓴 『주체문학론』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예술성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앞으로 북한의 작가들이 예술성과 사상성의 결합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김정일은 여러 군데에서 예술성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일정한 시대와 사회, 계급과 계층의 본질을 드러내고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일반화의 결과에 의하여 문학작품에는 사상적 내용이 담겨지게 되며 인간 생활을 개별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 보이는 개성화의 결과에 의하여 예술적인 맛이 깃들게 된다. 일반화와 개성화를 통일시키는 것은 전형화의 기본 요구인 동시에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원칙적인 요구로 된다.¹²⁾

11) 이재인·이경교, 전거서, p.155.

12)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92, p.40.

사상성과 예술성에 관한 문제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전반에 걸치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용과 형식의 통일,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 정치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통일, 철학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의 통일, 사상과 정서의 통일을 보장하기만 하면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킬 데 대한 요구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¹³⁾

김정일이 제시한 이런 요구 사항을 북한의 작가들이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작가들이 그의 요구대로 창작하게 된다면, 이것은 8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문학이 보여주었던 과도한 도식주의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는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울러 북한 작가들이 작가의식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보여준 의미 있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북한문학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III. 비평 및 문학 일반론과 현실

3.1. 해방~60년대 중반의 경향

북한에서는 비평이 당의 공식적인 노선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비평이 당의 공식적인 노선을 선전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북한 공산정권의 수립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는 관점이다. 해방 직후의 평단은 한효, 안막, 안함광, 한식 등의 전문 비평가와 함께 이기영, 한설야 등의 소설가, 이찬, 이정구, 민병균 등의 시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

13) 김정일, 『주체문학론』, p.46.

은 창작 활동의 테두리를 잡는 데 골몰했다.¹⁴⁾ 이것은 비평이 창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형식과 내용을 규제하며 결과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편향성 아래에서는 비평이 창작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후에 이루어진 북한에서의 비평은 질적, 양적으로 그 빈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평론이 작품의 의미를 밝히고 가치를 평가하는 온전한 실천비평으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이론비평이나 메타비평에 치중하여 창작이나 연구와는 다른 제 3의 독자적인 분과로 충분히 자리를 잡지도 못했다. 북한에서의 비평은 오로지 체제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작품의 창작을 지도하고 이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소임만을 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점은 현재도 그러하다.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비평을 이념과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이나 인신 공격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술한 『웅향』에 대한 백인준의 공격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文學藝術은 人民에게 服務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웅향』의 시인들을 공격하면서 “시집 『웅향』 속에 수록된 시의 태반 이상이 그야말로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고 간 일체 타락적 말세기적 퇴폐적 유습’의 표현이며 ‘반동적 예술의 세력과 그 관념’”¹⁵⁾이라고 혹평하고 편집이나 제목 표지의 디자인까지 비판을 하고 있다. 이 평론은 문단에 대한 숙청의 전조가 되었고, 이후에 전개될 창작과 비평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의 주장은 곧 모든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간단명료한 철칙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나 철칙은 6·25

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비판은 金容稷, 『韓國現代文學의 史的 探索』, 서울대출판부, '97, pp.138~141 참조.

15) 白仁俊의 평론은 鄭漢淑, 『解放文壇史』, 고려대출판부, '80, pp.53~63에 전문이 실려 있다.

이전까지는 원칙으로만 주장되었을 뿐, 창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지지는 못했었다. 창작 이론이나 방법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6·25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전후의 평론집으로 1954년에 발간된 『문학의 지향』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실린 글 가운데 순수한 평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서만일의 「문학의 장르로서의 오체르크와 그의 예술성」 뿐이다. 나머지는 안함광의 「문학의 계급성」, 김명수의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적 잔재와의 투쟁을 위하여」, 그리고 엄호석의 「문학창작에 있어서의 전형성의 문제」로, 여기에 와서 비로소 문학창작에서 구체적인 방법적 문제들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특히 ‘전형’의 문제를 다룬 엄호석의 글이 주목되는데, 여기에는 전후의 복구건설을 지원하는 문학이 어떻게 창작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글에서 “전형적 형상은 전형적 생활 현상의 예술적 표현, 즉 생활 현상 속에 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의 인격화인 바 그 속에는 작가가 선택한 중요한 사회력사적 현상이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형태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전형적 형상을 통하여 일정한 사회력사적 현상에 대한 지식을 교양받게 된다”¹⁶⁾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휴전 이후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어, 남로당계는 자아 비판과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채 숙청되기에 이른다. 그에 따라서 해방 이후에 나온 작품들은, 비록 그것이 그 속에 유사한 내용과 어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남로당계로 숙청 대상자의 것은 혹독하게 비판을 받은 반면, 북한출신 작가들의 것은 묵과되거나 상찬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문학활동이 정치적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북한의 창작이론이 작품의 실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북로당계의 전략

16) 엄호석, 「문학창작에 있어서의 전형성의 문제」, 안함광 외, 『문학의 지향』,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54, pp.129~130.

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된 것이라는 사실도 보여준다.¹⁷⁾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원칙을 어설프게 자의적으로 제시하고 실제에 적용한 것이 해방 이후 50년대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평론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천리마시대’로 명명되는 60년대는 사회주의 건설에 모범이 되는 전형적인 인간형의 창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서 오히려 창작의 성과는 그 이전보다 풍성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평과 이론 분야에서는 이전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워낙 비평활동이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이미 대부분의 창작활동이 당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문예총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기왕에 창작된 작품들에 대해 비판적인 평론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론 분야에서도 이런 빈약함은 마찬가지라서, 고전문학 작품의 발굴과 해제 등에 비교하면 이론 연구는 영성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北韓의 韓國學 研究成果 分析』의 부록에 의하면, 60년대에 나온 이 분야의 저작들로는 조선작가동맹에서 간행한 『전진하는 조선문학』(‘60), 박종식의 『문학개론』(‘60), 박종식·현종호·리상태 공저의 『문학개론』(‘64), 박종식의 『새시대의 문학』(‘64), 석인혜의 『문장의 길』(‘65), 강능수의 『문학의 기초』(‘66), 안함광의 『문학의 탐구』(‘66), 주영섭의 『극문학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66) 정도가 눈에 띈다. 필자가 이 책들을 모두 섭렵한 것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논단할 수는 없지만, 그 논의가 꽤 심화되었을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논의도 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60년대의 비평과 이론 분야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7) 金容稷, 전계서, p.155.

3.2. 60년대 후반~80년대 중반의 경향

북한 국문학계에서의 비평은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걸쳐서 영성함을 면치 못했으나 이론 분야의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라는 말은 5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나, 일반화된 것은 60년대 후반이다. 60년대에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가 있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이 국경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영토 분쟁과 주도권 싸움을 벌임으로써, 국제사회주의혁명노선을 통한 단결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울좋은 구호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천명하면서 독재권력의 정당성과 동거리외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후로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의 하나가 되었으며, 문예분야에서도 '주체적 문예'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주체의 문예이론에 따르면, 문학예술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며", "생동하고 진실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함으로써 인간에게 복무"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⁸⁾ 주체적 문예이론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60년대 후반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 이념을 예술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6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경향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이념을 강조하는 주체적 사실주의의 방향으로 변모하게 된다. 전개(前掲)한 『문예상식』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적 사실주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83, p.32.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주로 인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보고 그리었다면 주체 사실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린다. 주체 사실주의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 역사를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 발전을 그린다는 것은 인민대중을 사회력사 발전의 주체로, 사회력사적 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보고 그린다는 것을 말한다.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도 인민대중을 형상의 중심에 세우고 그의 역할을 그리기는 하였으나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그리지는 못하였다. 주체 사실주의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을 전형화하며 진실하게 그리는 창작방법이다.¹⁹⁾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원칙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이것은 문학의 창작, 비평, 연구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초월적이고 지배적인 원칙이다. 그 중에 당성은 70년대에 완성된 김일성의 1인 독재 및 유일사상체제의 강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거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할 것을 의무화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좋을 이 원칙으로 말미암아 문학은 정치와 불가분리의 관계로 묶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이후 김일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날조된 역사를 그리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70년대의 북한문학을 이해하려면 우선 종자론에 주목해야 한다. 종자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창작의 방법론이자 비평의 지도이론이다. 북한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그들이 발견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학이론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예이론가인 김정웅은 종자란 한 마디로 작품의 핵이자 사상적 알맹이로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과 가치를 좌우하는 기본이며, 소재와 주제 그리고 작품의 사상 등 형상의 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그것들을 유기적

19) 윤종성 외, 전계서, '주체 사실주의'조. p.701.

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라고 말한다.²⁰⁾ 종자는 작가가 “현실 속에서 의의 있는 생활 소재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탐구한 사상적 알맹이”인데, “종자가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핵으로 되는 것은 거기에 주제와 소재, 사상과 같은 형상의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사상 예술적 요소들이 생활의 알맹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체로 파악되어 있기 때문”²¹⁾이라는 것이다. 종자에 대해 《문학예술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리론의 하나. 우리 당이 밝힌 바와 같이 종자란 철학적으로 말해서는 작품의 기본핵이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근본 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적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는 반드시 창작가가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 놓은 자기의 종자가 있어야 하며 거기서 아름다운 형상의 꽃이 만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자의 본성은 작품의 사상 예술적 핵으로 된다는 데 있다. 종자에는 창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와 생활 소재에서 독창적으로 탐구한 사상적 알맹이가 있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똑히 쥐는 것은 주제와 소재에 관한 문제로 되며 사상적 알맹이에 관한 문제로 된다. 작품의 주제와 사상은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며 예술적 형상도 종자에 따라 좌우된다.²²⁾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이론가이자 문학사가였던 김하명에 의하면, 종자론은 작가에게 현실 속에서 의의 있고 진실한 생활의 묘사를 통하여

20)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2), 종자와 그 형상』, 평양 : 문예출판사, '88, pp.11-12.

21) 김하명, 『문학예술의 종자에 관한 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77, p.5.

22)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 '89, p.769.

사람들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생활 자료에 기초하여 예술적 형상의 꽃을 피워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활의 진실한 묘사를 배제하고 추상적인 구호의 나열과 주관에 기초한 개념적인 설명으로써 그 형상을 대치하는 도식주의적인 경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²³⁾ 그러나 이런 평가와는 달리, 당에서 작가에게 종자를 분명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그 실천여부를 검열함으로써, 종자론은 또 다른 형태의 문학적 도식주의를 형성하여 작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자론이 오히려 문학작품을 또 다른 형태의 교조적 도식주의에 맞추어 창작하도록 강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종자론이란 그들의 목적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작가의 상상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시된 허울좋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종자론의 구체화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60년대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주체의 문예이론을 더욱 부연하고 재해석하고 정밀화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도 70년대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그 결과는 80년대 후반 이후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15권의 책에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7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문학비평은 한 마디로 실천비평보다는 이론비평이 승(勝)하고, 실천비평에서도 이론비평에 전제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3.3. 80년대 중반 이후의 경향

80년대의 문예 분야는 거의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는데, 그는 이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정책을 펴게 된다. 그 결과 작가에게 독특한 개성과 예술성을 요구하여 작품에 서정성을 구현할 수 있게 했고, 비평에서는 그 대상이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도도 훨씬 깊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축적된 문학연구의 성과나 그동안

23) 김하명, 전계서, p.109.

진행된 이론화의 심도 즉 문학연구 자체의 심화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체제 안정과 이 방면에 대한 김정일의 영향력 증대에서 연유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비평이나 연구서들에는 눈에 띄게 『영화예술론』 등에서 보이는 김정일의 ‘지적’이 고딕체로 인쇄되어 논리 전개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의 ‘교시’ 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연구자들을 압박 또는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 시기의 비평이나 이론 연구서들에는 물론 이전 시기에도 크게 강조되었던 ‘종자’, ‘전형’, ‘수령 형상의 창조’, ‘주체적 사실주의’ 등과 같은 핵심적인 관심사 또는 개념들이 부연되고 재해석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편, 이전 시기에는 도외시되었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세부적인 문제들이 작품의 형상화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류만의 논문인 「문학예술 창작에서 개성적 특성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나 김용훈의 논문인 「소설작품 창작에 리용되는 내면세계 묘사의 기본 수법들」은 과도하게 내용만을 강조하던 그 이전이라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창작에서의 개성적 특성이나 내면세계의 묘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글들이다.

전자에서 류만은 “개성적 특성, 그것은 작품의 얼굴이며 그 작품으로 하여금 바로 그 작품으로 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이며 따라서 한 작품과 다른 작품을 뚜렷이 구별짓는 비반복적 특성”²⁴⁾이라는 전제하에 개성적 특성을 살려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에서 김용훈은 “내면세계 묘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소설작품의 형상성,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²⁵⁾라는 전제하에 내면세계를

24) 류만,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개성적 특성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 『문예론문집』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90, P.142.

25) 김용훈, 「소설작품 창작에 리용되는 내면세계 묘사의 기본 수법들」, 『문예론문집』 5,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90, P.50.

묘사하는 몇 가지 수법을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분석, 연상, 회상, 상상·환각, 착각·환각 등을 거론하고 실제 작품을 예로 들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물론 글의 심도가 그다지 깊은 것은 아니나, 90년대에 들어 비평가들이 이런 관심사들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현재까지도 북한 문단에서 비평이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북한에서 간행된 문예 분야의 저작들을 통해서도 쉽사리 간파할 수 있다. 북한에는 85년 이후에 창작된 문예작품을 87년부터 해마다 책으로 묶어 출판한 『문학작품집』이 있다. 여기에는 주요 시와 소설 그리고 문학평론과 함께 부록(그 해에 창작된 작품들의 목록)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책에 전문이 게재된 평론은 한 해에 세편을 넘지 않으며 89년처럼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지령 20호를 넘긴 『통일문학』이라는 문예지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과 해외에서 창작된 작품이 매호에 여러 편 실려 있는데 반해 평론은 거의 실려 있지 않다. 설사 평론이 실려 있을 경우라도, 그 평론들은 본격 평론이라기 보다는 거의 논문에 가까운 성격의 글들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북한문학에서 비평은 가장 열악한 분야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요하는 평론집이 있으니, 박종식의 『문학사조와 작가정신』²⁶⁾이 그것이다. 이 책은 평론이 활발하지 않은 북한에서 단행본으로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도 주목을 요하지만, 이 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더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평론가들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주창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화와 정밀화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징후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박종식은 남한문학에 아메리카

26) 박종식, 『문학사조와 작가정신』, 평양 : 평양출판사, '93.

니즘이 커다란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여러 작가나 연구자들은 물론 특정한 연구 방법론을 공박하는가 하면, 사실주의 문학만이 정당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작가나 작품을 옹호하기도 한다. 제 1부에는 '아메리카니즘의 반동적 본질'을 필두로 하여 자연주의, 순수문학, 실존주의, 모더니즘,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작이나 연구 경향을 비판하는 8편의 글이 실려 있고, 제 2부에는 남한의 특정 작가나 작품 미학을 논하는 5편의 글이 실려 있다. 한 두 편을 빼고는 모두 남한에서 이루어진 창작이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있는 평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평계가 남한의 문단과 학계의 연구 경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그들이 지향할 방향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90년대 북한에서 나온 이론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다. 이 책에서 김정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유연한 태도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과 20세기에 이루어진 문학적 성과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고 그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과 '주체'를 강조하는 노동당의 노선이 결합하여 나온 거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요구 사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권위와 문인 및 연구자들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행해지게 될 문학의 창작과 비평과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구체적으로는 고전문학의 연구 대상이 훨씬 확장될 것이며, 현대문학에서는 개화기문학을 포함하여 일제시대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문학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실제로 90년대에 전체 15권의 분량으로 기획되어 나오고 있는 『조선문학사』의 기술에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비평과 연구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국문학 연구와 현실

4.1. 해방~60년대의 경향

5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국문학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은 주로 일제 시대부터 문학을 연구했던 월북자들이나 6·25 당시에 남북된 인사들이었다. 북한에서 향가와 이두에 관한 한 거의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쌓았으며 한적의 번역에도 적극 참여했던 홍기문, 구술문학과 민요 연구의 기초를 닦은 고정옥, 판소리와 탈춤 연구에서 그 기초를 마련한 김삼불과 김일출, 문학사에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처음으로 채용한 이명선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국문학 연구에서 제 1세대에 속하는 인물들로, 그 면면만으로도 적어도 5,60년대까지 북한의 국문학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을 이어서 60년대에는 김하명이나 정열모 같은 서울대 출신의 월북 학자들이나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졸업한 북한 출신의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하게 된다.

창작 분야와는 달리 국문학 연구자들에 대한 노동당의 규제와 지도는 그리 엄격하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어느 정도는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여지가 있었다. 더구나 이들은 대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고 연구도 전적으로 당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그들이 처한 연구의 환경은 오히려 같은 시기 남한에서 활동한 학자들의 환경보다 훨씬 나은 편이었다. 많은 연구 인력의 확보와 국가적인 지원에 힘입어 5,60년대 북한에서 이루어진 국문학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국문학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제 1차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漢籍의 번역에 관심을 쏟았으므로, 고전문학의 연구에 관한 한 그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었다. 이 당시 북한에서 이루어진 국문학 연구가 주로 고전문학에 치우친 것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말해 준다. 그러나 한적의 번역이 이른바 국문학자라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문인들은 대부분 한학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었으므로, 한적을 번역하는 일에 언제라도 동원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해방 후 월북했던 시인이나 소설가들 가운데는 원전의 번역에 참여한 인물들이 있다. 예컨대 박태원, 이용악, 박세영 같은 사람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주로 시문학이나 실학과 문인들의 글을 번역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북한에서의 초기 국문학 연구는 현저하게 남한 출신의 학자나 문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60년대까지 북한에서의 국문학 연구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와 번역 사업이라는 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개별 작품이나 장르에 대한 연구보다는 오히려 1차적인 작업인 고전문학 작품의 발굴이나 해제, 번역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의 경우에서조차 상당수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국문학 연구는 발굴과 번역, 해제 등의 1차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인 개별 작품이나 장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채, 3차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국문학사 기술로 직행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문학사를 기술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예컨대 5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는 59년에 출판된 『조선문학통사』 상·하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50년대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국문학 연구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작품이나 장르들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게다가 문학사학자들이 자신들의 문학사를 집필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시대 구분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편에 이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기술된 내용 중에는 거칠고 부정확하여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이 같은 내용상의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시대 구분이나 서술의 방식 면에서 이후에 나올 국문학사들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문학통사』 이후 국문학사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근대의 기점이다. 이 책은 하권을 1900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때를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사회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국내 봉건제의 붕괴와 구미 열강의 침략 및 그에 대응한 조선 인민의 반침략·반봉건 투쟁이 나타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침략·반봉건 사상과 부르주아민주주의 사상이 주류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문학의 특성으로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 민권의 사상을 구현하고 반일투쟁 의식을 추동하며 봉건제도의 폐단을 폭로 규탄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²⁷⁾ 그러나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이후의 국문학사에서는 이 견해에 수정이 가해지는데, 이것은 문학 내적인 문제에서조차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0년대에 이룩된 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주의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북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에서 펴낸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 각 논문의 필자는 모두 북한에서 국문학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주의의 발생은 9세기설, 12~14세기설, 17~18세기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비판적 사실주의의 발생은 18세기설, 1910년대설, 1920년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비판적으로 절충하는 논의도 있는데, 예컨대 권택무 같

27) 진경환·신두원, 「문학사의 시대구분」,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91, p.74 참조.

은 이는 “사실주의가 9세기에 발생하여 12~14세기와 같은 중요한 단계를 거친 다음 17세기 이후 18~19세기에 이르러 봉건시기의 가장 높은 개화기에 도달하였고, 연암과 다산 등은 당시까지 가장 높은 단계의 사실주의의 단계에 도달한 동시에 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는데, 이것은 비판적 사실주의로 잇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²⁸⁾ 북한문학이 사실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50년대 말부터 이러한 미묘한 문제에 대해 논쟁이 되어온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4.2. 70년대~80년대 초반의 경향

70년대는 김일성에 의한 1인 독재가 완성된 시기였다. 그러므로 문학에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문학의 창작과 해석과 문학사 기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창작이론의 마련과 그 정밀화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기 북한문학의 한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그러나 그 결과로 국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은 소홀함을 면치 못했다. 북한의 국문학 관계자들이 ‘종자론’과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북한문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나 개념들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하는

28) 권택무, 「창작방향과 고대 사실주의의 문제」, 북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 편, 김시업 해제,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 사계절, '89. pp.23-53 참조.

29) 이 시기에 북한에서 창작이론의 마련과 그 정밀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하명 같은 문학사가조차 종자론에 관한 책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업만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77~81년 사이에 이루어진 전 5권의 『조선문학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연구 작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방대한 분량의 문학사를 집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이 시기 북한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연구의 경향과 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본고는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만을 바탕으로 분석·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실상과 일정한 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동안 국문학 연구에 집중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문학의 창작과 비평과 연구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창작에 관련된 분야로만 치닫게 되었으므로, 국문학 연구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고전문학 연구에서 그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문학이론가라기보다는 문학사가라고 할 수 있는 김하명 같은 이도 『문학예술의 종자에 관한 리론』이라는 저서를 내면서 문학이론의 탐구에 가담하고 있다. 창작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창작을 지도하는 일은 70년대의 북한에서 모든 문학 담당자들에게 부과된 지상과제였던 셈이다.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창작이론의 정밀화·구체화 작업에 동원될 만큼, 이 시기의 문학은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의 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한층 정치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북한에서 국문학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70년대 후반에 나온 『조선문학사』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현대문학에 관한 기술이 이전보다 훨씬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문학의 기점을 김일성이 만주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했다는 1926년으로 맞추고 전체 5권 가운데 3권을 이 시기 이후의 문학에 대해 할당하고 있다. 고대와 중세문학사를 1권, 근대문학사를 1권, 그리고 현대문학사를 3권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품들에 대해 불후의 고전이라는 영예를 안겨주기 위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과도하게 칭송한 결과, 이처럼 현대문학사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선문학사』 이후로 국문학사 기술은 역사적 합법칙성에 꽤어 맞추어져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한다.

이 밖에도 『조선문학통사』와는 달리 이 『조선문학사』는 시대 구분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전자에서는 1900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그리고 해방을 현대의 기점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19세

기 말을 근대의 기점으로, 그리고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후자가 근대의 기점을 몇십년 앞당기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논쟁으로부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주의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논쟁은 그것이 진행되었던 시기상 『조선문학통사』에 반영될 수 없었지만, 논쟁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조선문학사』에 와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90년대에 나오는 동일한 제목의 『조선문학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기점을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했다는 1926년에 맞춘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그것이 문학사 자체의 흐름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김일성의 항일투쟁이라는 일반사—엄밀히 이것은 일반사가 아니라 특수사 혹은 개인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를 근거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박약하다. 대상 작품을 김일성의 항일투쟁 과정에서 지어진 것들을 위주로 하고, 같은 시기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작품은 논외로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광수나 김동인, 염상섭 등의 작가나 모더니즘 계열의 주요 시인들은 물론 해방 전까지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했던 수많은 문인과 작품들을 배제하고 몇몇 작가들에 국한하여 논함으로써 국문학사를 빈곤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아무리 역사적 합법칙성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것은 김일성의 독재권력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당의 노선이 국문학사 기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문학사 기술마저도 완전히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 이 70년대는 국문학 연구의 암흑기였다.

4.3. 80년대 중반 이후의 경향

80년대는 북한에서 세습체제가 완결된 시기요, 김일성의 권위가 신의 그것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위력을 갖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체제의 안정에 따른 여유와 문예 방면에 다양한 지식을 가진 김정일의 주도적인 지도에 힘입어 국문학 연구도 한층 풍요해진다. 그동안 주체적 문예이론의 탐구에 가담하던 국문학 연구자들이 본래의 자리로 속속 돌아오게 되고 연구 대상도 확대됨으로써, 국문학 연구는 70년대의 암흑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선 그 동안 거의 중단되었던 작품에 대한 수집, 번역, 해제, 윤색, 출판 작업을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60년대까지의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이전의 작업이 어떤 뚜렷한 원칙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80년대 이후의 작업에는 주체적 사실주의와 주체의 문예이론에서 원칙으로 내세운 당성, 인민성, 계급성이라는 기준 내지 원칙에 정확히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현대성과 역사주의라는 부가적인 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집 발굴된 작품은 반드시 그들이 제시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윤색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출판되는데, 이것을 80년대의 체제 안정기에 나타난 국문학 연구의 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문예 방면에서 김정일의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국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문학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민족문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경계해야 할 태도를 논하고 있다. 민족문화예술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가) 역사주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개개의 유산을 해당 시기의

사회력사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다룬다는 것을 말하며 현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풀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이룩된 민족문화예술 유산의 력사적인 특성을 무시하여서도 안되며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현대적 요구를 외면하여서도 안된다.³⁰⁾

(나) 복고주의는 민족문화예술 유산을 계승한다는 구실 밑에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고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미화분식하는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 복고주의가 조장되면 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에서 로동계급적 선이 흐리게 되고 착취사회가 남겨 놓은 진부하고 불건전한 사상 요소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봉건유교 사상과 부르쥔아 사상이 되살아나게 된다. ... 봉건유교 사상과 부르쥔아 사상을 반대한다고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문학예술 력사와 민족 고전작품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나라 력사에 어떤 고전작품이 있었는지 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지 모르게 된다. ...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내세울 줄 모르는 사람은 배의 없이 민족허무주의자이다. ... 민족허무주의는 뿌리가 깊고 집요한 것인 만큼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³¹⁾

인용문 (가)에서는 역사주의와 현대성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작가나 작품을 그(것)들이 연관된 사회력사적 조건 속에서 평가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 착취 계급에 반대하고 인민들의 고통을 펴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나 작가들은 진보적이라 하여,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투쟁의식이나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나 작가들은 반침략 애국주의적이라 하여 높이 평가한다. 또한 현대성

30) 김정일, 「주체문학론」, pp.73-74.

31) 김정일, 앞의 책, pp.74-75.

의 원칙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을 대량으로 수집 정리하고, 그것을 계급 투쟁을 고무한다는 일정한 목적의식에 의해 윤색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출간된 고전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쉬운 현대어로 씌어져 있고, 내용도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게, 그리고 계급의식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윤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대성의 원칙이 작용한 결과이다.

(나)에서는 북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북고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민족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평가 기준을 구라파 문학에 두고 그것에 민족문화예술을 기계적으로 대비하려는 사대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인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배척받을 여지가 있는 봉건적 궁중예술에 대해서조차 그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우리 문화예술을 살찌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유희적인 태도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런 결과로 인해 가능해진 연구성과는 90년대에 씌어지고 있는 『조선문학사』에 충분히 반영되게 된다.

김정일은 현대문학에 관해서도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는 『주체문학론』에서 개화기의 신소설 작가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논의가 금기시되었던 이광수나 최남선, 정지용과 이효석 등 반인민적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일제시대 작가들의 작품까지도 정당한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창작에서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과도 유관하다. 그는 또 문예총 위원장으로 있다가 63년에 숙청되어 70년대 후반에 나온 『조선문학사』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한설야조차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이런 지침은 『조선문학사』의 기술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일제시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문학활동을

논하고 있는 『조선문학사』 제 9권의 79~82쪽에서는 정지용의 시를, 그리고 147~153쪽에서는 한설야의 소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80년대 이후로 달라진 북한에서의 국문학 연구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은 단순히 지침만을 내리지 않고 실제적인 역할도 한 것으로 보여서 주목된다. 이것은 문예 방면에 대한 그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는 동시에, 국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본고에서 김정일의 역할에 깊이 주목을 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 령도사 (3)』라는 책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지시로 84년부터 90년도까지 제 1단계로 조선시대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조사 발굴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작품과 새로운 작가들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 가치가 높은 다수의 작품들이 선집으로 묶여 출판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95년도까지 2단계로 조사 발굴 작업에 대한 과업을 부여했다³²⁾고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일의 지시는 고전문학 연구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된 동인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제 2단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제 1단계 사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들로 제시된 것을 볼 때, 김정일의 지원에 의해 고전문학에 대한 1차적 연구는 풍부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문학사』에 반영된 결과나 정통진 등의 전계서에 거명된 작가나 작품들 가운데는 남한 학자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일정 부분에서 성취한 연구는 충분히 인정되어도 좋을 듯하다.

김정일의 주도에 의해 북한문학이 획기적인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고도로 경색된 사회주의 국가임을 증명한다.

32) 정통진·강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문학 령도사 (3)』, 평양 :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93, pp.255-267 참조.

다. 이것은 결국 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문학이 80년대 이후에도 역시 정치사적인 현상과 밀접하고도 민감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의 문학이란 결국 노동당의 노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에 관한 한층 유연한 김정일의 접근 방식이 가져온 성과는 통일된 한국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V. 결론

북한의 역사는 김일성 1인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역사에서 이만큼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한다. 김일성의 권력강화와 김정일에게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의 정치사는 대략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다수에 의한 권력 분점기인 50년대, 김일성의 독재권력 강화기인 60년대, 1인 독재체제의 완성기인 70년대, 세습체제의 안정적 확립기인 8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4시기로 나뉜다. 북한은 경직되고 교조주의적인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니 만큼, 이런 정치적인 변모는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문학의 창작과 비평, 그리고 국문학 연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물론 정치사적인 변화가 문학의 변모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사회문화 변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이상, 필자는 북한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본고의 목적상 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서 문학과 정치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창작과 현실과의 관계는 정치사적인 변모와 거의 일치한다. 해방 이후 50

년대까지는 이른바 민주기지 건설기와 전후 복구 건설기를 포함하는데, 이 시기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60년대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이 강조되었는데, 이에 따라 문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인하며 근로자들이 혁명사상을 키우고 공산주의적 풍모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문예창작은 집체적 성격을 띠고, 작가들은 당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 70년대에 주체사상이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면서 문학에서도 주체적 사실주의를 강조하게 된다. 그것이 창작에서는 김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업적을 경쟁적으로 날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불멸의 역사》라는 총서는 그 극단적인 결과물이다. 이 시기로부터 문학은 시류에 아부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특정인을 미화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는 김정일이 작가들에게 개성과 서정성 그리고 예술성을 요구함에 따라 창작에서도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고 지나친 도식주의를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80년대 이후의 작품들에서 소재가 다양해지고 작가의 목소리가 절제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사정과 관련된다.

북한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창작활동을 반복적으로 규제하고 지도하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전쟁 이전의 비평은 인민에게 복무하는 예술을 요구하는 과격하고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창작이론이나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전후의 복구 건설기 문학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기라는 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60년대 후반부터는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이른바 당성, 인민성, 계급성이라는 3대 원칙을 확정하는데,

이 가운데 당성은 특히 김일성에 의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후 한편으로는 주체의 문예이론을 더욱 부연하고 정밀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발견한 세계 최고의 문예이론이라고 자랑하는 종자론을 구체화하고 이에 맞추어 작품을 창작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종자론이나 주체의 문예이론을 정밀화하는 작업에 못지 않게 작품의 형상화 정도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것은 김정일이 작가들에게 개성과 서정 그리고 예술성을 구현할 것을 요구한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또 북한의 일부 평론가들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주목되기도 한다.

국문학 연구도 어느 정도는 정치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해방 이후 60년대까지의 국문학 연구는 노동당의 지원에 힘입어 주로 일제시대부터 연구활동을 했던 월북 학자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특히 고전문학 작품의 수집, 발굴, 번역, 해제, 윤색 등의 1차적인 작업이나 개별 장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70년대는 주체적 사실주의라는 모토에 따라 창작이론의 마련과 그 정밀화에 치중하던 시기로, 국문학 연구는 거의 암흑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현대문학에 관한 한, 김일성의 독재권력 강화와 맞물려 그의 항일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품들에 대해 불후의 명작이라고 강조하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국문학사의 시대 구분도 이 시기에 이르러 19세기 말을 근대의 기점으로, 그리고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했다는 1926년을 현대의 기점으로 설정하여 철저하게 역사적 합법칙성을 강조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다시 고전문학 작품들에 대한 수집, 해제, 번역, 윤색, 출판 작업이 재개된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60년대까지의 그것이 갖는 의미와 전혀 달라서, 주체적 사실주의에 맞는 윤색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시기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구에 주목할 만한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고전문학 작품의 수집 발굴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게 했다. 그의 이런 역할에 힘입어 국문학 연구는 그 대상과 깊이가 크게 확충되었다. 이것은 향후 통일한국의 국문학사 기술을 위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내적인 변모 과정을 정치사적인 변화라는 문학 외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고찰한 결과, 문학이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창작, 비평과 문학 일반론, 국문학 연구로 나누어 서술했다. 그러나 이런 분산 기술은 기실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각각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창작과 이론과 연구 작업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반복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제반 문학적 현상을 칼로 자르듯 구분하여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연결하는 원인이자 핵심적인 동인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사적인 변모 과정을 들 수 있다. 문학은 문학 자체의 내적 질서를 유지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 또는 사회사에 종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믿고 주장하듯 문학이 사회를 직접적이고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이른바 반영론을 지지해 주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철석같이 믿는 반영론에 켜어 맞추기 위해 작품의 창작과 문학연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것이 마치 역사적 합법칙성에 부합하는 것처럼 호도한 결과로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 문학이란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실체가 아니라 정치에 종속된 개체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의 국문학과 정치사적인 변모 과정을 연관지어 해석한 필자의 작업은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 '89.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상·하, 평양 : 과학원출판사, '59.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출판부, '86.
- 김용직, 『한국 현대문학의 사적 탐색』, 서울대출판부, '97.
- 김용훈, 「소설작품 창작에 리용되는 내면세계 묘사의 기본 수법들」, 『문예론문집』 5,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90.
-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2), 종자와 그 형상』, 평양 : 문예출판사, '88.
- 김정일, 『영화예술론』, 평양 : N.P., '73.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92.
- 김하명, 『문학예술의 종자에 관한 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77.
- 류만,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개성적 특성과 그 실현을 위한 요구」, 『문예론문집』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90.
- 문예출판사, 『문학작품집』 (85)~(91), 평양 : '87~'93.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91.
- 박종식, 『문학사조와 작가정신』, 평양 : 평양출판사, '93.
- 북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 편, 김시업 해제,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 사계절, '89.
-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94.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1~5,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77~'81.
- 안함광 외, 『문학의 지향』, 평양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54.
- 윤종성 외, 『문예상식』, 평양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94.
-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86.
- 이재인·이경교, 『북한문학 강의』, 인천 : 효진출판사, '96.
- 정룡진·강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문학 령도사 (3)』, 평양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93.
- 정한숙, 『해방문단사』, 고려대출판부, '80.

정홍교 외, 『조선문학개관』 I·II,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86.

정홍교 외, 『조선문학사』 1~5, 8~11, 14,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외,
'91~'96.

지교헌·심경호 외,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91.

평양출판사 편, 『통일문학』 2~7, 9, 12~13, 20집, 평양 : '89~'94.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83.2.

受贈圖書目錄(1997年 7月1日 - 1997年 11月 30日)